

기업 휘청거리도 오너 일가 부동산은 '뽕뽕'



서울 성동구 -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

인베니아, LG그룹이 디스플레이 사업 위해 설립 자본잠식·상폐 위기, 암흑 터널에 갇힌 소액주주

금수저 출신,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는 범LG가 3세로 금수저 출신이다. 범LG는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회 일가와 공동 창업주 허만정 일가, 그리고 이 두 집안의 동생들 일가를 말하는데 구동범 대표는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철회 전 LG그룹 회장의 손자이며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는 7촌 사이이다.

구동범 대표의 할아버지인 구철회 회장은 형인 구인회 회장과 함께 LG그룹을 만든 창업 공신이기도 하다. 이후 LG손해보험을 모태로 하는 LG그룹을 창업한 구철회 회장은 아들을 넷 두었는데 그중 막내인 구자준 전 LG손해보험 회장이 구동범 대표의 아버지이다.

LG그룹과는 다른 LG 일가의 행보

우리 재계에서 옛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양반가의 전통을 지켜온 기업은 LG그룹이 유일하다. 조선시대 엘리트 관료인 사간원 정언, 흥문관 교리 등을 지낸 구연호의 장손으로 태어나 엄격한 훈육을 받으며 자란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이 상인의 길을 걷게 된 것 자체가 드라마틱한 일이기도 하다.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24세 때인 1931년 창업한 '구인회상점'이 1947년 화장품 제조사인 '탁희(樂喜)화학공업사'를 거쳐 오늘날 LG그룹의 모태가 되었는데, 이후 처가인 허씨 가문과의 잡음 없는 동업 경영, 슬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고수해 온 겸손과 성실의 도를 통해 1950년대에 이미 국내 4대 기업 중 하나로 제철의 반열에 올라섰다.

기업 승계 과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잡음 없이 모범적인 경영을 이어 온 LG 분가와 달리 구인회 창업 회장의 동생인 구철회 LG 창업 회장 일가는 이런저런 구설수와 잡음에 노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구철회 창업 회장의 장남인 구자원과 아들 구본상 부자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범정 구속된 사건이다. 건설업 진출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함께 이 사건을 계기로 LG그룹은 사세가 많이 기울고 말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철회 회장의 막내아들인 구자준 전 LG손해보험 회장은 인베니아를 계열 분리해 그룹에서 독립해 나왔다.

인베니아는 LG그룹이 디스플레이 사업 위해 키운 회사

LG그룹 계열사였던 인베니아는 원래 LCD(액정화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차세대발광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1년 LG정밀화학(現 LG이노텍) 출신 직원들이 세운 벤처기업 에이디피엔지니어링이 모태로, LG그룹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를 위해 지원하며 키워 온 회사이다. 그런 만큼 LG디스플레이(LGD)에는 장비 납품을 반 독점하는 등 LG 계열사들의 도움으로 창사 이후 줄곧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오르막길을 달려 왔다.

그런데 2013년 LG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구자준 전 LG손해보험 회장은 기존 최대 주주였던 조가 구본업 전 부회장과 의 주식교환을 통해 인베니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어 2015년에는 장내매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1만2000주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려 인베니아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후 디스플레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두 아들이 미국에서 불러들여 부사장 자리에 앉히는 등 낙하산 인사로 빈축을 샀다.

인베니아도 편법 승계 등 의혹, 구설수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와 동생 구동진 부사장은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LG 미주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고 두 사람 모두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이들 형제는 귀국해 형인 구동범 씨가 2014년, 이듬해엔 동생 구동진 씨가 차례로 인베니아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2018년, 구자준 전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인베니아 주식의 일부를 구동범·동진 형제에게 증여했고 이듬해 구동범 사장(8.5%)과 구동진 부사장(8.5%)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3세 경영체제로 전환됐다.

당시 구자준 전 회장(6.07%)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6.3%에 이르렀고 구동범 사장의 개인 회사인 MRO(자재 구매관리업체 '디디고'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당시 미성년자였던 구동범 대표와 구동진 부사장의 자녀들에게 인베니아의



1 성수동 한화 갤러리아포레. 2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인베니아 공장 건물. 3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구동범·동진 형제 공동명의로 토지. 4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



계열사인 인베니아브이의 지분을 배당, 이후 인베니아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구동범 외 7인) 지분율을 27.9%로 끌어올려 놓았다.

미국 국적 포기 과정에서의 부동산 매각

구동범·동진 형제는 귀국 당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는데 그 시점이 하필 국내 병역의무 종료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징세를 위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제정 이후인 점도 주목됐다. 이 법은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예금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을 물게 될 판이었다.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는 미국 국적 포기 직전 샌프란시스코 콘도, 뉴저지의 부동산 등을 급히 처분했다. 이 두 부동산은 구 대표가 25세 때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범 대표 체제 이후 위기의 인베니아

한 집안인 LG그룹의 LG전자·LG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일종의 내부거래를 통해 승승장구하던 인베니아는 이후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재무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등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은 결과다.

특히 2022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고, 매출액도 2021~24년 83.77%나 급감했다. 결손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4억 원으로 불어났고 부채비율도 263.6%에 달한다.

인베니아는 결국 올해 6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7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구동범·동진 형제의 보유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놓았다. 이것은 곧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어서 9월엔 결손금 보전을 위해 11월 20일을 기준으로 75%(4:1) 무상감자를 단행, 이후 약 13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병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일각에선 이것이 주가를 희석시켜 주주들에게 자본 확충 부담을 떠넘긴 행위라는 비난이 일며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2년 초 2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주가는 올해 저점 기준 473원까지 내렸다.

오랜 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 재무 악화를 메꾸기 위한 무리한 감자 및 유상증자 추진, 그리고 소액주주와의 갈등 등으로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는 경영자로서의 신뢰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다.

회사는 어려워도 오너 일가는 최상급지거주
부자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건

안락하고 부유한 평생을 보장받는 길, 게다가 자식 사랑이 끔찍한 부모를 만나면 행운이 더해진다. 구동범·동진 형제의 경우 바로 그렇다. 미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귀국할 때까지 그들의 부모는 미국에, 한국에 두 아들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회사를 물려줄 준비도 탄탄히 해 놓았다. 그래서 회사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대한민국 상위 5%가 사는 훌륭한 거주지에 살며 든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는 요즘 가장 핫한 동네인 성수동에서도 초고가 시장을 이기는 3개의 '대장'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한화 갤러리아포레의 공급면적 298㎡(90평형)에 거주하고 있다. 이 평형은 지난해 2월 100억 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올해 2월엔 94억5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성수동 한화 갤러리아포레... 전세대 70평 이상의 대형 평수

성수동 한화 갤러리아포레는 독점역서 울산역 역세권, 서울숲 숲세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면에 한강이 보이는 위치로 성수영등대교를 건너면 곧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다. 2008년 당시 3.3㎡(평)당 4535만 원의 초고가로 제대로 분양될지 우려를 샀으나 보란 듯이 완판되었다. '현금자산 100억 원 이상, 백화점 지출 1억 원 이상 VIP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이 먹힌

것이다. 전용면적 기준 167~271㎡(50~82평), 공급 기준 전 세대 70평 이상의 대형 평수뿐만 구성된 갤러리아포레는 트리마제·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더불어 성수동 초고가 시장을 이끄는 '대장'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이다.

배우 한예슬, 가수 지드래곤 등 다수의 연예인이 거주해 '연예인 아파트'로도 알려졌는데 그룹 세븐틴 멤버 디노(본명 이찬·26)는 2월 전용면적 195㎡(59평) 한 세대를 90억 원에 매입해 6월 초 등기를 마쳤다.

남양주엔 동생과 공동명의로 토지도 소유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동생 구동진 부사장과 공동명의로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4173㎡(약 1262평) 규모이며 2006년 12월 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형제를 위해 사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구동범 대표의 동생인 구동진 부사장은 이 토지 인근에 별장 건물과 필드 6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버지 구자준 전 회장이 2006년 매입해 별장 건물을 지어서 구동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별장 전체의 토지 규모는 3385㎡(약 1023평)이며 건물은 전용면적으로 295.63㎡(약 90평)이다.

박혜수 기자 phs@skyedaily.com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장군이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일관빈 지음
개정 신국판
20~30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성공을 위한 자존감을 높이는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

일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